조계종 초대종정 한암스님 '선문답 21조' 본지 단독입수 (중)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근원으로 돌아가면 일과 이치 둘 아니야

〈제6문〉 이미 깨달음이 철저한 후에는, 어떠한 것이 여실한 수양(修養)입니까?

〈답〉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관문을 지난 자는 굳이 다시 나루터를 물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미 깨달음이 철저하다면 어찌 수양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구름과 달은 한가지이나 시내와 산은 각기 다르니, 또한 아래 문장의 주해를 들을 지어다.

한 줌 버들가지 거두지 못하여
봄바람에 날리어 옥 난간에 실려 있다.
一把柳條를 收不得하야 和風搭在玉欄干이니라

〈제7문〉 이미 수양(修養)한 후에는 어떠한 것이 여실한 증득(證得)입니까?

〈답〉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물었다.

"잣나무도 또한 성불을 할 수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말하였다.

"있다!"

"어느 때 성불할 수 있습니까?"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느 때 허공이 땅에 떨어집니까?"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는 옛 사람이 무생(無生)의 도리를 철저하게 깨쳐서 거꾸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들어 쓰는 시절이겠지만, 오늘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속히 일러라. 속히 일러. 허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과 잣나무가 성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손가락을 한 번 튕기고 이르시기를.

"하마터면 주해를 잘못 쓸 뻔했다."

〈제8문〉 이미 증득한 후에는, 어떠한 것이 여실히 원만하게 끝을 잘 맺는 것입니까?

〈답〉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앞에는 스님이 없고 여기에는 노승이 없으니, 이는 눈앞의 법이 아니오 이목(耳目)으로 이를 바 아니다."고 하니, 제방의 선지식들이 이 말을 가지고서 어떠한 사람의 경지인가를 말들 하곤 한다. 나는 여기에 이르러 모두 다 잊어 버렸노라.

〈제9문〉 처음 발심으로부터 끝을 잘 맺는데 이르기까지, 어떠한 마음이 제일 긴요하며 귀중한 경구(警句)가 되는 것입니까?

〈답〉 석두[17]화상의 〈참동계(參同契)〉[18] 맨 끝 구절에

"삼가 참선인에게 고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후일 법안(法眼)[19]스님이 이 말을 들어 말하기를,

"여실한 은혜를 참으로 갚기 어렵다."고 하셨다. 나 또한 여실한 은혜를 참으로 갚기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하여야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소식인가.

한 차례 큰 기침을 하고서 게송을 내렸다.

달큰한 복숭아와 감을 먹지 아니하고
산을 따라 올라가 시큼한 배를 따노라.
不喫甘桃柿하고 緣山摘梨니라

〈제10문〉 간화(看話)와 반조(返照)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매양 참선인들이 서로 논쟁하니, 바라건대 자상히 논변하여 밝혀 주소서.

〈답〉 나는 웃으면서 말한다. 위에서 물은 바는 엇비슷이 곡조가 같아서 들을 만 하지만, 여기에서 물은 뜻은 또다시 바람이 별조(別調)로 부는구나. 하지만 나의 한 마디 말을 들어보아라.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넘에 흐르는 물을 가로지르니
토끼와 말이 밑바닥에 닿지 못함을 관계치 말라.

알겠는가. 만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날 그대들과 더불어 자세히 말하리라.

옛날에 앙산스님이 위산[20]스님에게 물었다.

"어떠한 것이 참부처〈眞佛〉의 주처〈住處〉입니까?" 위산이 말하였다.

"생각과 생각이 없는 오묘함으로써 신령한 불꽃의 무궁함을 반조(返照)하여서 생각이 다하여 근원(根源)으로 돌아가면, 성품과 법상(法相)이 상주(常住)하여 일〈事〉과 이치〈理〉가 둘이 아니요, 진불(眞佛)이 여여하다."

앙산이 그의 말에 곧바로 대오(大悟)하였다. 그 후 심문분(心聞賁)[21] 선사가 이 화두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생각과 생각이 없는 오묘함으로써 신령한 생각의 무궁함을 반조하여서, 생각이 다하여 근원(根源)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무슨 정결한 병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시끄러운 티끌 속에 들어가서, 거스르고, 순응한 들 무엇이 물들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성나게 하리오. 그러한 이후에 밝음과 어둠 두 가지를 철저하게 타파하여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대비원(大悲院)에서 재화(齋話)가 있다는 화두를 간파하여야 바야흐로 유래(由來)를 알 수 있으며, 바야흐로 낙처(落處)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 한 쪽 눈만으로도 산하대지를 조파(照破)하니, 마치 하늘에 장검을 빗겨든 것 같아서 어느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이와 같은 힘이 있어야만이 바야흐로 능히 성인의 대열에 들어가서 인행(因行)을 부지런히 닦아 자비와 지혜의 원력을 성취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법문도 또한 오직 이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고 별도로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신령스런 불꽃의 무궁함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것이 반조가 아니겠는가.

"대비원(大悲院)에서 재화(齋話)가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 화두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앙산은 "신령한 불꽃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말에 이미 대오(大悟)하였거늘, 심문분(心聞賁)선사는 무엇 때문에 다시 화두를 관(觀)하도록 하였을까?

깨달음을 얻은 자가 모두 앙산과 같다면 다시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만일 앙산의 깨달은 바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견(知見)이 없어지지 않아서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다.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오(大悟)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심문분(心聞賁) 선사가 반조하는 가운데 철저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이처럼 특별히 말한 것이다.

또한 고봉(高峰)[22]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의 화두를 들다가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닌다.'는 언구(言口)를 타파하여 대지가 잠기고 물아(物我)를 모두 잊어서 정(定)을 잡고 주인이 되었지만, 설암스님의 '잠잘 때에 꿈도 없고 생각이 없는 곳에서는 주인이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곧 바로 대답할 말이 없고 말할 수 있는 이치가 없었다. 설암스님이 다시 나에게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이 어느 곳에서 안신입명(安身入命)을 하는가.'를 관(觀)하도록 하였는데, 결국은 함께 잠자는 도반 스님이 목침을 떨어 뜨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물 속에서 뛰쳐나온 듯이 툭 트이어 한 생각에 작위가 없어지고 천하가 태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옛 그 사람이오, 옛날의 행리(行履)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한암스님의 서간문. 자유자재한 필체가 선사의 걸림없는 경지를 보여준다.

각주

17)석두(石頭) : (700~790) 당나라의 승려. 속성은 진(陳)씨. 회천(希遷)선사의 법호. 출가 후에는 조계에 가서 육조스님을 모셨는데, 육조의 유언으로 청원 행사를 찾아가 크게 깨치고 그의 법을 이었다.

18)참동계(參同契) : 당나라 석두희천(石頭希遷)지음. 5언(言) 44구 220자로 된 장편의 고시(古詩). 선종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현상이 곧 실재라는 이치를 기록한 것. 참은 만법 차별의 현상, 동은 만법평등의 본체, 계는 차별이 곧 평등, 평등이 곧 차별인 묘용(妙用).

19)법안(法眼) : (885~958) 선종의 1파인 법안종(法眼宗)의 시조. 법명은 문익(文益). 중국 여항(餘杭) 사람.

20)위산(潙山) : (771~858) 중국 위앙종 초조(初祖). 법명은 영우(靈祐). 속성은 조(趙). 시호는 대원 선사. 복주 장계 사람. 백장(百丈)스님의 법회에 가서 공부하다 크게 깨달았다.

21)심문분(心聞賁) : 생몰연대 미상. 임제종 황룡파, 욕왕 개심의 제자.

22) 고봉(高峰) : (1238~1295) 원나라의 승려. 속성은 서(徐)씨. 이름은 원묘(原妙). 운암(雲巖) 흠(欽)의 법을 잇다. 대오(大悟)후 천목산(天目山) 서봉에 들어가서 사관(死關)을 짓고 은거, 16년 동안을 문턱을 넘지 않고 마침내 57세에 그곳에서 입적(入寂)하였다. 참선하는 이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선요(禪要)》와 《고봉록(高峰錄)》을 저술함.

이해에 걸리면 불법실천 어려워

문 평소에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해가 좌우되는 문제에 부딪히면 말씀따라 처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천시 중구 신흥3동 · 이서호)

답 철석같은 믿음이 부족한데서 오는 동요라고 봅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면 가르침을 잊는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이끝의 가부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열심히 믿으니까 이익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용납하는 세속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현실 문제에서 넘어지든 일어서든, 가든 오든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흔들림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해서 그걸 불법의 덕으로 돌릴 일도 아니고, 적게 벌린다해서 또 탓할 일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벌든 못 벌든 그런 일에 걸림없이 보무도 당당히 걸어가는 길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당당한 길이냐,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라고 하니까 이익이 온다, 불이익이 온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이끄시는 삼계도사이십니다. 비할 데 없는 스승이십니다. 그런 큰 스승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철석같은 믿음으로 근본자리에 놓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요.

마음공부를 거듭 말씀하시는 뜻은

문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서울 송파구 방이동 · 박금순)

답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가는데 그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도리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질문하신 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혹성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려면 먹고 먹히는 전쟁아닌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미생물에서 인간이 되기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뼈저린 아픔을 참고 견딘 것은 어떡하구요. 그점을 생각하면 어느 때는 사는 게 하찮고 쓸데없어 보이고 어느 때는 하늘 쳐다보고 웃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만 모두들 내몸, 내가정 하면서 좁디좁은 생각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사니 막막해서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요?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되어서 온갖 물건이 다 만들어지고 땅과 하늘을 주름잡게 되었지만 마음공부와 비교한다면, 아니 마음공부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이란 빛보다 빨라서 한순간에 과거로 갔다 올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올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엄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윤회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 그런 것을 몽땅 녹일수도 있는 공부입니다. 또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끌어다 붙려면 끌어다 보고 놓아두고 붙려면 놓고보고 가져다 먹을려면 갖다먹고, 갖다주려하면 갖다 줄수 있고, 과거생의 살림살이에 따라 지금 찰나찰나 생활속에서 나오는 업보도 녹일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나는 새를 떨어 뜨리려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만명이 있다해도 동시에 내가 될 수도 있는 공부입니다. 만명이란 숫자없는 숫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내가 되지 않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유 자재의 대권을 갖는데, 이 우주천지의 모든 대천의 소유자인데, 그야말로 엄청난 공부라서 그걸 어찌 말로 다 하리까.

주위서 개종하라고 성화인데

문 주위 분들이 자꾸만 타종교로 개종하라고 성화를 부려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서울 노원구 공릉2동 · 장순석)

답 불교란 특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라 함은 이름입니다. 참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를 좇아 부처가 되는게 이 공부입니다.

또 부처란 이름없는 것을 부처라 하지 이름있는 것을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란 부처로 가만히 있는게 부처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수없는 모습으로 몸을 나투기에 사생자부인 것입니다. 진짜 부처는 자유자재함을 이릅니다.

불법이다, 불교다 국한지으면서 사찰에 가고 덮어놓고 부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부터 밝게 알라고 하셨습니다. "네 몸과 내 몸이 다르지 않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일체 생명, 일체 마음이 다르지 않다"하셨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를뿐이지요. 사람들이 기독교니, 카톨릭이니 이슬람교니,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기복으로 빠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놓고는 바깥 상대로만 가게하는지? 그리되면 세세생생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이나 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눈뜬 장님 되지말고, 귀머거리 되지말고 절름발이 되지말고 당당하게 이 우주 천하는 모두 네 마음에 직결되어 있으니 천상천하에 우뚝하리'고 하신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름에 끄달리고, 이름을 믿지 마시고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95 을해년 새해에도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 되십시오

전통문화재 조각회 합장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재방스님께 찾아뵙지 못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기가 아쉬워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송구영신하옵고 부디 대안하소서.

회 장 김익홍
부회장 송근영
운영위원 허길용 · 이상철
총 무 이재순
감 사 김광렬 · 이청원

회 원 김익홍, 허길용, 김영배, 조병현, 이상철, 이진형, 이청원, 송근영, 박상돈, 박찬수, 박찬봉, 김정걸, 김광현, 류수관, 안태수, 신윤기, 정호석, 한봉석, 김태길, 제영진, 하명석, 오윤용, 이재순, 김광렬, 김종화, 양봉철, 남기설, 한주영, 윤만걸, 이기경, 김용섭, 임성안, 정춘식, 김홍복, 이태만, 김대현, 안강수

※ 저희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원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엄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장인으로 일체의 사물에 일체의 불심을(일체중생 실유불성) 표상코저 노력하며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 4월 8일 봉축행사의 일원으로 덕수궁(국화전)에서 전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